

문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찾아가는 설명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찾아가는 설명회가 24일 광주문화재단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300여명의 지역 예술인이 참여,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재단측은 현재 컨설팅팀을 운영, 예술인들의 기금 지원을 돋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소설가 은미희 광주문화아카데미 강연

27일 시립민속박물관



로 풀어낼 예정이다.

강연 후에는 참가자들과 함께 중외공원을 산책하며 문학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목포 출생인 은씨는 1999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다시 나는 새'로 당선돼 등단했으며 '비둘기집 사람들'로 삼성문화상을 받았다. '나비야 나비야', '인당수에 빠진 심장' 등을 발표했다. 문의 062-523-783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미경 작 '비누로 만든 도자기'



이아남 작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

“볼 것 많은 ‘아트광주’서 작품 구입하세요”

오는 9월 개막하는 ‘아트·광주:11’(1~4일·이하 아트광주)에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아남씨가 선보이는 회화 작품과 샘 테일러 우드 등 유명 작가의 작품이 대거 출품된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여는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2일~10월23일)에 맞춰 리차드 우드 등이 디자인한 독일 브랜드 ‘MCM’의 한정판을 판매하는 등 불가리도 풍성하다.

가장 기대되는 전시는 영국의 대표 영상 작가인 샘 테일러 우드, 영국 터너상을 수상한 마크 레키, 올리아 리 알리나, 한국의 신미경씨, 데비 한 등의 작품을 선보이는 ‘더블 데모크라시’(Double Democracy) 프로젝트.

샘 테일러 우드는 화이트 큐브 갤러리에서 전시했던 ‘사이’(sigh)를 전시하고, 마크 레키는 청자로 만든 ‘비너스’를 선사한다.

또 신미경씨는 비누로 만든 도자기 전시를 연 신씨는 영국에서 비누 조각 전시로 주목받고 있는 작가다. 배병우·신미경·조덕현·정연우·우제길·데비한·홍성철·황영성씨 등도 이 섹션에 신작을 발표한다.

특별전에 초대된 이아남씨는 기존에 발표했던 미디어 아트와 함께 조각과 회화를 출품, 눈길을 끌고 있다. 고전 작품을 LCD 모니터 속에 넣은 뒤 원래의 그림이 움직이게 한 미디

어 아트에 등장하는 달항아리와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를 모델로 한 조각과 회화를 비교·전시한다.

또 실험정신으로 무장한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뮤지움 아울렛’(Museum Outlet)에는 서울의 ‘아트스페이스 풀’, ‘대안공간 루프’, 스페인의 ‘아트리움 미술관’(Atrium Museum) 등 국내외 미술관과 비영리 미술기관 11곳이 참여한다.

영상·미디어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비디오켓’(Videoclet)도 기대되는 섹션이다. 국내 미술시장에서

회화에 비해 거래가 드물었던 영상·미디어 작품을 집중 소개하고, 가능성 있는 작가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다.

참여 화랑별로 초대된 작가들의 작품도 풍성하다. 갤러리현대, 이화의 갤러리, 국제갤러리 등 국내 유명 화랑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독일 등 해외 화랑 19곳이 다양한 작가를 초대했다. 또 인아갤러리, 시안갤러리, 원갤러리, 예향갤러리 등 광주지역 화랑과 갤러리화인 등 부산, 대구, 전주 등지의 지역 화랑 24곳도 알찬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 가죽 가방 등을 생산하는 ‘MCM’은 크렉 레드먼, 리차드 우드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한정판 작품을 출품했다.

한편 전시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11시~오후 8시(단 4일만 오전 11시~오후 5시)이며, 입장료(성인 기준)는 1만원이다. 예매를 하면 30% 할인, 단체 20명 이상은 20% 가량 할인받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는 무료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670-7982.

<이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크렉 레드먼 디자인 ‘MCM’ 가방

시립미술관서 즐기는 시민음악회

27일 외국인 예술인과 함께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이 27일 오후 3시 본관 1층 로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광주국제교류센터와 함께 지역에서 활동하는 내·외국인 예술인이 참여하는 음악회와 전시회로 꾸며진다.

힙합그룹 다 매뉴 블루먼트(Da Blue Movement)과 춤과 노래를 무대에 올리고 맨지(Mange) 등이 유튜브 우크렐라를 연주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고침> 24일자 광주일보 문화면 ‘음악가 정 추’ 관련 기사 중 ‘광주고보’는 현 ‘광주일고’이기에 바로잡습니다.

‘해설이 있는 음악회’ 두 번째 ‘오페라, 그 행복한 중독’

정열의 오페라 ‘카르멘’을 만난다

31일 문예회관서 무료공연



해설 이용숙 소프라노 김선희

광주일보와 광주문화회관(관장 정창재)이 공동주최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의 두 번째 공연 ‘오페라, 그 행복한 중독’이 오는 31일 오후 3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으로 마련하는 이날 음악회에서는 유명 오페라 평론가 이용숙씨의 해설로 2006년 런던 코벤트가든로 알오페라단과 2010년 뉴욕메트로

비제의 ‘카르멘’은 에스파냐의 세빌리아 지방을 배경으로 정열의 집시여인 카르멘과 순진하고 고지식한 하사관 돈 호세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DVD 상영에 이어 소프라노 김선희(조선대 외래 교수), 메조 소프라노 신은정(호남신학대 외래 교수), 바리톤 김기보(광주대 음악학부 외래 교수)씨 등이 출연, ‘이젠 나 두렵지 않네’, ‘하바네라’, ‘투우사의 노래’ 등 ‘카르멘’의 주옥같은 아리아들을 선사



2010년 뉴욕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카르멘’ 공연

할 예정이다. 이날 해설을 맡은 이용숙씨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드문학 및 음악학을 수학했으며 서울대 공연예술학 박사과정 수료했다. 국립 오페라단 운영자문위원,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을 역임했고, 저서로는 ‘오페라, 행복한 중독’, ‘지상에

핀천상의 음악’, ‘사랑과 죽음의 아리아’ 등이 있다.

이번 해설이 있는 음악회는 무료다. 참가희망자는 공연 시작 10분 전 까지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 입장하면 된다. 문의 062-613-8350, 062-220-0651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등록 제41-0187289

dalm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예약
문의

062) 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 도·소매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툼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를 찾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신동 367-12